



골든 보태니컬

클래식한 골드와 싱그러운 보태니컬의 조화, 여기에 과감한 보라색이 더해져 신비로운 공간을 완성했다. 함께 혹은 따로, 각자의 개성을 발하는 아이템의 향연.

- 1 황동 헤드에 코팅 처리를 해 지문 등 오염을 최소화했으며 근대적이 있는 베이시한 디자인이라 다양한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. 25만원, **엔스이아터**
- 2 심플한 원형 거울은 입체적인 골드 프레임으로 포인트를 주었다. 황동이 아닌 우드 프레임만 만들어 비교작가이다. 56만원, **코치노**
- 3 도발을 연상시키는 포스터는 작품과 프레임에 우드 컬러를 사용해 부드럽고 내추럴한 무드를 풍긴다. 하일라이트 제품으로 7만6000원, **테이클로우**
- 4 눈에 띄지 않는 합성수지에 인쇄한 작품으로 낯익은 그림을 원으로 연결해 못으로도 벽에 부착이 가능하다. 25만원, **익시**
- 5 작고 가벼운 벽시계는 별을 연상시키는 다각형 모양이 특징. 골드 빛 프레임이 고급스러운 포인트 역할을 한다. 8만원, **개레**
- 6 대리석과 골드의 조화가 세련된 무드를 풍긴다. 초침이 굵직 없이 돌아가는 싱크로스 방식을 선택해 소음이 적은 제품으로 6만9000원, **피아바**
- 7 싱그러운 12가지 식물의 사진을 담은 달력, 향광염료를 사용하지 않아 색 박함이 적고 두께감 있는 종이로 만들어 1년 동안 사용하기 좋다. 6800원, **후기엔**
- 8 다양한 패턴의 텍스처를 재미있게 결합한 프린팅 기법으로 만든, 계층으로 골드와 불투의 클래식한 조화가 아름답다. 23만7000원, **마넨**



모던 블랙

때론 모던하고, 때론 시크하다. 워트 있는 디자인마저 정찰을 수 있다면 그런 블랙이 있기 때문. 당신의 공간에도 멋진 그림자가 드러난다.

- 1 남파에 따른 달의 변화를 표시한 아센적인 달력. 액자에 넣어 벽에 걸면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손색없다. 2만5000원, **차운터트리**
- 2 심플한 디자인의 벽 거울은 크기가 작아 공간 활용도가 높고 큰 거울과 맞스 맞지 않더라도 스타일링 연출하기에도 좋다. 4만9000원, **하우스라벨**
- 3 장식적이지만 따뜻한 재질의 제품은 세라믹이 소재이며 바늘을 도고 처리해 부식 및 흠집에 강한 것이 특징. 7만2000원, **비엑스**
- 4 비례감이 돋보이는 최신포 작가의 작품은 깔끔하게 분할한 면을 같은 원색으로 채워 현대적인 감각과 세련미를 느낄 수 있다. 18만원, **프린트베이어디**
- 5 인쇄한 사진을 강화유리로 마감해 만들었다. 실제 달을 옮겨놓은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가 매력적이다. 디젤 크리에이티브가 디자인한 제품으로 86만원, **모호조**
- 6 두 가지 다른 색상과 크기를 결합해 개성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다. 오트뮤이드 제품으로 가격미정, **뮤이브엔드인**
- 7 월, 일, 연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캘린더용 시계는 영국 해비타트(Habitat) 브랜드에서 만들었으며 16만5000원, **미워101**
- 8 스웨덴 디자이너 라사 벵트손(Lisa Bengtsson)의 시리즈 포스터 중 하나. 워트 있는 그래픽이 모노톤으로 마무리돼 모던한 디자인을 완성했다. 3만7000원, **테이클로우**
- 9 월, 년이라는 달력의 시간을 시계의 초와 포인터로 나타내 제시하는 디자인이 돋보인다. 5만8000원, **클라이너트스튜디오**

